

민주, 공천률 개혁안 처리 난항

총선 공천 '슈퍼스타 K' 방식 도입 논란

특위 연장...내달 4일 전체회의 처리 가닥

민주당이 개혁특위가 대선과 총선 후보 선출 방식 등 최종안 도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개혁특위는 총선 후보 선출과 관련, 수도권과 호남에서부터 슈퍼스타 K(배심원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 및 당직 선거 개혁안과 관련, 최종 논의에 나섰으나 일부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특위 가동시한을 연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에 있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국민참여경선에 '슈퍼스타 K(배심원 평가) 방식'을 가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배심원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수도권과 호남 지역 공천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3명, 시민 3명으로 고안된 배심위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의 격차

가 클 경우 배심원 평가방식을 생략하는 예외조항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배심원단 경선이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총선 공천에서 슈퍼스타 K 방식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 개방경선에서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지역별 인구보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과 모바일 구분 없이 투표자의 50%에 대해 인구보정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특례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중앙당 여성위는 ▲전체 전락공천의 50% 할당 ▲공천자의 30% 배정 ▲대의원 50% 할당 ▲해당 지역 출마경험자를 제외하듯 모든 여성 예비후보에 20% 가점 부여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특위에서는 개방 경선 방식에서 공천자의 30%를 여성에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여성에 대한 지나친 배려



민주당은 28일 KBS 수신로 인상 저지 처치를 건 총력전에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KBS 수신로 인상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과 위원장실을 점거했다. /연합뉴스

민주 수신로 인상 저지 총력

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친다는 반론이 많았다. 여기에 모든 여성 후보에 20%의 가점을 부여할 경우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을 포함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위는 다음달 1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4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개혁안을 성안할 계획이지만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가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특위의 개혁안이 도출되더라도 최고위, 당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대선 및 총선 후보 선출 방법과 관련,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유동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한, 특위의 개혁안이 민주당 대권주자와 당권주자,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추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당내 이견을 감안할 때, 최고위원회 등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총선 공천안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노 광주시당 내년총선 '시동'

예비후보 1차 5명 등록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1차 모집 결과, 모두 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민노당은 이처럼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역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민노당의 대안적 정책공약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보정책포럼, 당원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광주 남구, 오병은 전 사무

총장은 광주 서구 을, 윤민호 위원장과 이체인 교수는 광주 북구, 장 공동대표는 광산구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장은 지난 7일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예비후보 1차 모집을 결정하고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등록을 받았으며, 조만간 2차 예비후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민노당은 이처럼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역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민노당의 대안적 정책공약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보정책포럼, 당원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박지원·정두언과 관계 불라고 압박"

임병석 C&그룹 회장 밝혀...표적수사의 의혹 제기

영광 출신의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민주당 박지원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이성현 의원 등과의 관계를 불라고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에 나올 한 주간지의 임병석 회장의 옥중 인터뷰에 의하면 나를 비롯한 정두언·이성현 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대라고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했더니 경제사법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2년 율령이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임병석 회장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다만, 목포에 (C&중공업) 조선소가 있어서 사건 이후에 알았는데 그렇게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을 딱 집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라며 거듭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도 최근 입수한 임 회장의 옥중 메모를 통해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옥중메모에서 "중수부는 박지원 장관과 민주당, 친이계 소장파(정두언 의원), 친박계 의원(이성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느꼈다"며 "이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임 회장의 하나의 추측이지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임병석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아 불렀지만, 이 장관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명예훼손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호남부터 혁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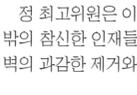
광주 온 정세균 최고...신인 장벽 과감히 제거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8일 "민주당이 호남에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며 "민주당 변화의 중심은 호남에서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남부민주벨트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부민주벨트 복원의 필요성과 호남 혁신론을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권 해체 요구는 호남 주민의 목소리"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호남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호남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호남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당 밖의 참신한 인재들이 민주당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의 과감한 제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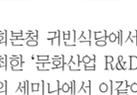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기술 R&D연구원 시급"

민주 장병완 의원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개발(R&D)연구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CT연구원(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수 연세대 교수는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최한 '문화산업 R&D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이 상상력과 예술을 이끌고, 상상력과 예술이 기술을 이끄는 양측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문화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벌 친척 일감몰아주기 근절"

민주 조영택 의원 오늘 토론회... 법안 발의



재벌 및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이 이에 대한 실태 진단과 방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신하 민변 서민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재벌 및 대기업의 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법안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이 자녀 및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우회 상속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원, 한나라당 새 '전대룰' 적용불가 결정

개정 당헌 효력정지...정식판결까지 기존 당헌 유지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28일 법원이 당 전국위원회의 '1인2표제, 여론조사 30% 반영'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압축을 맞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비상규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당 법률지원단,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전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 안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전국위원회 재소송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김모씨는 "당헌을 일부 개정기로 한 지난 7월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성지용)는 "당헌 개정 결의의 가처분 일부를 본안 판결(당헌 개정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신청)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신원IC 교통광장점 건너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대 지: 250평(30×8코너)
- ▶가로32m, 세로26m(분할가능)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8.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련원경치,수련원기도원까지 여유대지있음,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읍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열리베터 들어 올출산단입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만원)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메리카우후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답: 9150㎡ 계획관리지역 배너우 15~20년생 2000주이상
-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로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